

10신종, 280여종, 완보동물은 8신종을 포함한 50여종, 극피동물은 1신종, 110여종이 보고되었으며, 연체동물의 경우 1848년부터 외국인에 의하여 시작되어 현재 해산과 담수산을 포함해 14신종을 포함해 약 650여종이 보고되었다. 모식표본의 보관은 이화여자대학교 자연사박물관, 한남대학교 자연사박물관,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우석대학교, 해양연구소 등에 각각 보관되어 있다.

SL705

**UN의 '지구분류학사업' -
분류학계의 당면 과제**

이 병 훈

전북대학교 자연대 생물과학부

오늘날 지구의 자연과 생태계가 크게 손상되어 하루에 50-100여종의 생물이 사라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1992년 6월 UN은 세계환경개발회의를 열어 생물다양성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을 체결하고 나라마다 자연을 경제적으로 활용하되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원리와 기술을 개발하도록 촉구하였다. 그러나 지구상에 생물종이 얼마나 되며 각각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분포 변화와 유전적 다양성을 보이고 있는지 극히 일부 밖에 알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협약의 과학기술보조자문기구(SBSTTA)와 당사국회의(1996. 11)는 나라마다 자체적으로, 그리고 국제협력을 통해 '분류학 능력의 제고' (Capacity Building for Taxonomy)를 도모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작성하고 승인하게 되었으며 지구분류학사업(Global Taxonomy Initiative; GTI)으로 추진토록 결의하였다. 그 후 이 사업(GTI)의 준비위원회가 국제생물과학연맹(IUBS), UNEP, 계통분류학사업 2000 (Systematics

Agenda 2000) 등과 연대하여 지난 3년간 그리스(1997. 9), 오스트레일리아(1998. 2), 런던(1998. 10), 뉴욕(1998. 10), 파리(1999. 2)에서 열렸고 다음 사항들이 논의되었다.

- 1) 분류학적 연구가 모든 나라의 정부 부서들이 추진하는 각종의 지속 가능한 개발사업에 투입되어야 한다.
- 2) 분류학적 기반시설(자연사박물관과 식물표본관등)이 창설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 3) 분류학 훈련과정이 개설, 운영되어야 한다.
- 4) 국가참조표본센터를 지정하고 표본내의 정보가 표본의 원산국에 전달되어야 한다.
- 5) 분류학적 필요에 관한 평가와 분류학적 작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워크숍이 개최되어야 한다.
- 6) 신물질 탐색(bioprospecting), 주춧돌 중, 가축의 근연 야생종, 생물학적 방제, 외래종의 통제, 질병 통제 등을 위한 조사와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 7) 지구분류학사업과 국내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 8) 이러한 사업의 이행을 위해 국가마다 분류학 행동 계획(Taxonomic Action Plan)을 수립해야 한다.

그간 한국 정부는 이러한 분류학 능력 제고를 위해 각종 지원과 인력확대 그리고 국제협력을 꾀할 것을 "생물다양성 국가전략"(대한민국, 1997)에 표명하였으나 그 후 지난 수년간 진행된 것은 거의 없다. 우리 분류학자들은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의 국제적 분위기와 국내의 당면문제에 대처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까를 깊이 생각하고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